

결핵은 병이 아니라 ‘삶’ 이었다

글 김희수

결핵, 이 한 단어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처음 가족 중 어머니의 결핵을 시작으로 하나 둘 우리 가족은 결핵으로 모두가 병들어 가야 했다. 굶주림과 무절제할 수밖에 없는 생활 속에서 결핵은 더 깊이 더 깊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처음 결핵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신체 검사에서였다. 엑스선 촬영을 하고 나자 학교에서는 결핵이라는 병명을 말해 주었고, 보건소에서 약을 타 먹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가정형편은 약을 먹고 치료를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었고, 병의 무서움을 모른 채 결국 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젊음은 결핵의 진행을 막았고 고 2가 될 때까지 그러저럭 살게 되었다. 그러나 몸 안에 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을 안고 사는 것이 쉬울 수 없고 결국엔 학업도 삶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아마 이것이 대부분의 결핵환자가 느껴야 하는 삶의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까운 사람들도 결핵이라는 말에 서서히 멀어져 가고 누구 하나 나를 붙잡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는 절망적 삶 속에서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왜 그리 고통스러웠는지...

부모님의 돌아가심과 함께 시작된 병상의 떠돌이 생활은 그 깊이를 더해갔고 세월의 깊이가 더해수록 병의 깊이도 더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보양원이라는 동산에 오게 되었을 때 그곳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삶의 동산이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안정적인 삶.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삶이 해결되어지는 동산에서 마음의 안정은 곧 삶의 욕구를 불러 일으켰고 그 강한 삶의 욕구는 치료에 힘을 더하게 되었다.

결핵이라는 그 질기고도 질긴 병의 힘도 서서히 그 끝을 보이고 난 결핵의 시술에 매인지 14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결핵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약도 좋고 생활의 수준도 좋아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초기발견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결핵이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핵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둠속에 감추어야 하는 병?

생각해 보면 결핵은 삶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병이 중해도 삶이 안정적이 되면 그 치료의 효과가 커지고 완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병이 경하여도 삶이 엉망이 되어 버리면 그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결핵은 병이 아니라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약도 좋고 생활의 수준도 좋아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초기발견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결핵이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핵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삶의 모습,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솔로 채워야 하는 무절제함, 그리고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반감으로 더욱 고립되어져야 하는 삶의 문제. 지금도 결핵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삶 속으로 몰고 가는 아픔의 사슬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결핵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의 현실은 결핵이 어두운 사회저편으로 감추어져야 하는 부

끄러움의 병으로만 치부되고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으면서도 병들었음을 감추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제는 결핵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삶을 제공하는 삶의 치료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저 약만으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육체의 병과 삶의 아픔을 함께 겪어야 하는 이들에게 삶의 안정과 치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 제도와 삶의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결핵이라는 아픔보다 더 아파해야 하는 삶의 가슴앓이로 시퍼렇게 멎든 가슴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병을 치료하며 삶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의 힘찬 모습들이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가 아니라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이 우리 결핵환자들에게도 활짝 열렸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오늘도 살며시 가슴에 품어본다. ¶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잃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